

지자체가 농사재해 미리 알려주니 '든든'

나주시 기상·병해충 예측정보 시스템 본격 가동

병해·돌풍 위험 등 2200농가에 신속하게 제공

"기온이 떨어져 서리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니 배 과수농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세요."

지난 7일 오전 배꽃이 활짝 피면서 인공 수분작업에 바쁜 배 농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나주시가 푹 떨어진 기온으로 서리피해가 우려되자 보낸 문자였다. 서리발생 정보를 제공받은 농가들은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잠열(g당 80cal)을 이용하는 미세 살수법이나 왕겨·톱밥·짚 등을 3m 간격으로 설치해서 태우는 연소법, 상층의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순환시키는 방상(防霜) 팬 등의 대책을 세워 서리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나주시가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리와 병해, 돌풍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정보 및 병해충발생 예측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지난 6일부터 밤샘 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은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집한 7일 새벽 시간대 최저기온과 풍속정보를 분석한 결과 영하 0.3~0.7도 측정됨에 따라 생육기 동해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 2200 농가에 신속하게 기상정보를 제공했다. 시는 자동 기상관측소와 함께 울



올해도 풍년들길 나주시 농업관련 단체장과 배 재배농가들이 지난 7일 금천면 배 박물관에서 나주배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배신제(祭)를 지내고 있다. <나주시 제공>

연말에 건립하는 친환경 과학영농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영농의 과학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나주시 기술지원과 관계자는 "정확한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지역 곳곳에 설치된 관측정보를 이용해 국지성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손영철기자 ycon@

이 소가 강진 명품 한우

노민섭 녹색목장 대표

우량한우 씨수소 배출

강진 녹색목장 노민섭 대표(사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보 씨수소를 배출해 한우 개량육종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한우 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한 제66차 한우 육종농가 생산우(牛) 후보 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 검정 결과 녹색목장 수소 1마리를 비롯해 전국

에서 21마리가 선발됐다. 이번 선발에 출품된 한우들은 전국에서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육종농가가 생산한 씨수소로, 이후 유전평가를 거쳐 보증 씨수소로 선발되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노 대표의 농장은 한우 육종농가로 선정될 만큼 기술력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씨수소 후보군에 포함될 송아지가 있따라 나올 가능



노민섭 대표와 생산우 후보 씨수소

성이 크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김춘기 팀장은 "앞으로도 한우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 한우 개량기술교

육 등을 통해 강진 한우산업 발전과 인지도 제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장성군 다문화자녀

사교육비 지원한다

장성군이 열악한 학업환경에 놓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번 협약에서 (주)경농은 나주시 군은 만 5세부터 초등학교까지 96명을 대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4개 업체의 학습기 구동료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2개 과목까지 지원하며, 매달 과목당 자부담금과 업체 후원금을 제외한 전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 관내 학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6명에게 매달 최대 두 과목까지 학원 수강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전북



봄을 그려요 순창지역 어린이들이 최근 순창문화원 주최 '제 12회 청소년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에 참가해 민개한 뱃나무 아래에서 글을 짓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농촌형 레스토랑에서 건강 챙기세요

순창읍 장류밸리 내 건립

친환경 먹거리 생산·판매

건강·친환경을 테마로 하는 농촌형 레스토랑이 순창읍 백산리 장류밸리내 고추장 전통 민속마을에 들어선다.

순창군 동·서양 발효문화사업단(발효미생물 관리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촌형 레스토랑 운영사업은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연계 사업을 통해 4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이뤄졌다.

군은 고추장 민속마을 내에 있는

전북대 순창분원 건물중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레스토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레스토랑은 농가 주도형의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군은 4월 중 주민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10월 말까지 레스토랑을 설치할 예정이다.

레스토랑은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건강·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샐러드 코너와 농가 생산의 발효식품 반찬 코너, 친환경 축산원료를 이용한 발효커피 등을 갖춰 타지역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

만원에 떠나는 전북여행

순환관광버스 매주 주말 운행...8개코스 무박·1만원

주말에 전북지역의 관광지를 적은 비용으로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11월 16일까지 관광객들을 태우고 도내 14개 시·군 유명 관광지를 코스별로 나눠 돌아보는 순환 관광버스를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

순환 관광버스는 한류문화의 중심인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 전주에서 숙박하는 가족단위 체류형과 도내 당일 프로그램으로 짜였다.

당일 프로그램은 전주, 익산, 진안, 남원, 무주, 부안, 군산 등 인기있는 관광지나 축제장을 8개 코스(무박·요금 1만원)로 나눠 구경할 수 있다.

이달 12~13일은 김제, 정읍, 군산 선유도를, 19~20일에는 고창, 부안, 무주 태권도원을, 26~27일에는 임실, 순창, 고창 청보리밭을 방문한다.

서울과 부산지역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은 각각 광화문과 부산역에서 출발해 새만금 방조제, 젓갈시장, 내소사 등을 둘러보고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하룻밤을 잔 뒤 연계 관광지(경건전, 풍문문 등)를 거쳐 돌아간다.

이 관광코스 요금은 서울과 부산 모두 9만7000원(성인 기준)이다.

예약이나 문의는 대형 여행사(1588-1466)나 관광산업과(063-280-3333)로 하면 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내장호 네이처센터 단풍 생태공원 운영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내장호 네이처(Nature) 센터' <사진>에서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내장호 주차장 인근(구 4차차장)에 위치한 '내장호 네이처 센터'는 지난해 말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정읍시가 합체해 총사업비 63억원을 들여 환경교육과 여가활용의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국립공원 최초로 조성됐다.

탐방프로그램은 '보고, 듣고, 즐기는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을 주제로 자연을 공예체험과 함께 계절별 생태 이모저모를 배우며 즐길 수 있다. 또 매주 일요일에는 전기충전식 친환경 단풍열차 탐승체험도 함께 이뤄진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담양 폐건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양곡창고·죽제품공장 등

아트홀·카페로 리모델링

담양군 양곡보관창고와 죽(竹)제품 가공공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담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공모선정에 따라 관방제림 주변 양곡보관 창고인 남송창고와 죽제품 가공공장을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군은 총사업비 12억1200만원을 투입해 남송 양곡창고 2동(660㎡)과

죽제품 가공공장(290㎡)을 아트홀, 문에카페 및 아트샵, 레지던시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건물 주변과 조각공원 등을 정비해 다목적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은 관방제림 보존사업을 위해 지난 2009년 남송창고와 죽제품 가공공장을 매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관방제림 일대를 창작문화 예술촌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신청을 추진했다.

또한 문화공간 조성 후에는 담양군 문화재단에서 총괄 운영한다. 북카페 등은 지역내 예술인단체나 예술인 조합 등에 위탁해 점진적으로 풀뿌리 경제와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나주시-3개 기업 237억 MOU 체결

올해만 11개 기업 투자유치

혁신도시 연계 산단 분양 중

나주시는 최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경농과 (주)오에스텍, 인셀(주) 등 3개 기업과 237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주)경농은 나주시 금천면 일원에 친환경농업 연구시설과 시험시설 투자, (주)오에스텍은 태양광 이용형(LED) 식물공장에 137억, 인셀(주)는 에너지 저장시설 조성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나주시와 투자협약에 서명한 기업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기관 연관이 11개에 이른다.

시는 이전 공공기관 및 클러스터

와 연계한 연관이 기업의 제조활동을 위해 미래 일반산업단지(178만6120㎡)와 신도 일반산업단지(29만6759㎡)를 조성해 급속가공과 정보통신, 농식품제조 등 산업시설을 분양중에 있다.

신도산단은 60%가량 분양됐으며, 오는 7월 분양공고를 낼 예정인 미래산단은 문의전화와 맞닿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나주 일반산단과 노안 농공단지 등 총 7개소(172만 2966㎡)를 조성해 100% 분양 완료한 바 있다.

나주시 기업지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발맞춰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해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맞춤형 직원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단신

정읍시 연지청사 후관 녹색건축물로 재탄생

정읍시 연지청사(구 군청) 후관이 국토교통부 주관의 '녹색건축물 조성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1990년 건축된 연지청사 후관의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 기초조사 및 평가를 거쳐 녹색 건축

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시는 현재 같은 부지에 정읍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쉼과 상설 소공원을 건립중이다.

김생기 시장은 "내년에도 정읍지역 노후 건축물이 '시공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 귀농·귀촌학교 입학식...창업 등 지원

(사)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한성)는 8일 공음면 옛 신원초등학교에서 제7기 고창군 귀농·귀촌 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교육은 고창

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새내기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운영된다.

총 22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농촌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득작목과 신지식인 강의 등이론교육과 현장실습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수료생에게는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의(063-560-8816)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순창군, 청사 온실가스 저감률 도내 1위 달성

순창군이 지난해 청사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한 결과 33.3%의 온실가스 저감률로 도내 1위를 달성,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액 27억여원을 확보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 13%보다 20% 이상을 초과한 성과이다.

군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기시설 개·보수, 냉·난방시설인 지열 히트

펌프 보수공사 등 시설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전등 끄기와 개인 전자기기 사용금지, 겨울에는 내복입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군은 에너지 절약으로 2011년 5억9000만원, 2012년 9억5000만원을 각각 확보한 바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 시립국악단 '판소리 다섯바탕의 맛' 개최

전주 시립국악단은 10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정당 연주회에서 판소리 주요 대목을 50인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함께 들을 수 있는 '제19회 정기 연주회-판소리 다섯바탕의 맛'을 연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수공가 중 '가자마자 어서 가자'(최경래 단원), 적벽가 중 '동남풍 비는 대박'

(광주 시립국악단 윤진철 명창), 심청가 중 '벌과종류'(김민영 수석단원),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도립창극단 송재영 명창), 춘향가 중 '어사상봉'(남원 시립예술단 이난초 명창)을 소리한다. 입장료는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이다. 문의(063-281-2766)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